



한화 허주석(왼쪽)은 고교시절 메이저리그 팀들의 구애를 받을 만큼 대형 유망주였다. 그러나 프로의 벽은 높았다. 2012년 데뷔 이후 오랜 단련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한화의 주전 유격수로 성장했고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굵은 땅을 울리며 더 큰 진화를 꿈꾸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류현진

첫 실전 등판서 합격점 류현진 '커브가 아쉽네'

화이트삭스와 평가전 2.2이닝 1실점

류현진(31·LA 다저스)이 개막을 앞둔 첫 실전 등판에서 만족스러운 피칭과 함께 가볍게 몸을 풀었다.

류현진은 6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글렌데일의 캐멀백랜처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와의 비공식 평가전에 선발 등판해 2.2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맞고 1점을 허용했다. 총 36개의 공을 던졌고 그 중 22개가 스트라이크였다. 커브를 비롯한 다양한 구종을 시험했다. 특히 커브에 대해 변화를 예고했다.

당초 류현진은 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할 계획이었지만, 다저스 선수단이 노로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며 불가피하게 실전 테스트를 미뤄야 했다. 휴식기를 갖고 컨디션을 회복한 류현진은 시카고와의 경기서 1회 선두타자에게 2루타를 허용했지만, 이후 8명의 타자를 연속 범타 처리했다. 이후 류현진은 내야 안타와 3루타를 연달아 허용하며 1실점 한 뒤 이날 등판을 마쳤다.

류현진은 경기 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커브의 회전수를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지난 시즌 평균 시속 72.2마일(약 116km)의 커브를 구사했던 류현진은 전체 구종 가운데서도 15.7%의 비중으로 커브를 선택했다. 비교적 속도가 느린 커브로도 피인타율 0.158, 장타율 0.316으로 효과를 봤던 류현진은 속도 대신 회전수에 변화를 꾀했다.

이날 투구에 대해 "커브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외적으론 만족스럽다"고 운을 띄우며 "커브에 회전을 더 늘리려 한다. 이론상으로 회전수를 높일 경우 타자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즌 중에는 시도해볼 기회가 없었다. 커브 회전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확실할 수 없지만, 스프링캠프 기간동안 회전수를 늘려 타자들의 반응을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대경 기자 seody3062@donga.com

투수가 믿고 던지는 유격수로...허주석은 진화 중

<한화>

베이스볼 피플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 버리자 편안 수비 중점...내 앞에 오는 공 100% 처리 올해 부상 없이 130경기 이상 출전 목표"

한화 허주석(24)은 2012시즌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의 영광을 거머쥔 주인공이다. 그러나 고교 시절과 달리 프로의 벽은 높았다. 타자들의 타구 질과 투수들의 변화구 각까지. 모든 것이 달랐다. 쉬운 일이 단 하나도 없었다. 메이저리그(ML)에서도 러브콜을 받았던 대형 내야수에게 입단 후 2년간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알을 깨고 나오기까지 고통이 컸다. 무한한 잠재력은 2014~2015시즌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낸 뒤에야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다.

현재 허주석의 팀 내 입지는 과거와 견줘 크게 달라졌다. 이제는 부동의 주전 유격수다. 풀타임 첫해인 2016시즌 115경기에서 타율 0.279(405타수 113안타), 10홈런, 57타점을 기

록하며 타격에 눈을 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시즌에는 111경기에서 타율 0.285(432타수 123안타), 11홈런, 52타점의 성적을 거뒀고, 수비에서도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2016시즌 19개에 달했던 실책이 지난해에는 9개로 크게 줄었다. 한화의 숙원이었던 공수겸장 유격수의 탄생이었다.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만족이란 없다. 그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않고 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고 자신을 낮춘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대목이 있었다. 좋은 유격수가 되기 위한 제1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립했다.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 C) 2017 대표팀에 차출됐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일본대표팀 유격수 겐다 소스케(세이부)의 수비 장면을 유심히 관찰하며 실전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리 힘을 빼고 글러브를 땅에 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시즌을 거듭하며 야구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진 것이다. 5일 전지훈련지인 일본 오키나와 고친다구장 한쪽에서 기자와 마주앉은 허주석에게 2018시즌에 임하는 각오와 야구 철학을 물었다.

●과거와 차이는 편안함...유격수의 기본은 수비
허주석은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묻자 "편안함"이라고 했다. 이는 수월하다는 의미가 아닌, 강박관념을 버렸다는 뜻이다. "내가 생각한 부분을 실전에 접목하며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입단 첫해와 2년차 때는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컸다. 뭔가를 더 하려고만 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한결 편안하다."

수비력 향상에 대한 고민도 끝이 없다. 허주석이 이번 캠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훈련하는 부분도 그것이다. 이는 화려함보다 안정감을 추구해야 한다는 철학과도 궤를 같이한다. "올해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수비다. 유격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비라고 생각한다. 아직 완벽한 게 아니니 안정감을 더해야 한다. 코치님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좋은 유격수? 투수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허주석에게 유격수가 지녀야 할 제1의 가치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주저 없이 "투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쳤다.

"유격수에게 워낙 많은 타구가 날아간다. 그때 투수가 불안해하지 않고, 타자가 확실하게 아웃된다는 생각을 하게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그러기 위해 채준국 수비코치님과 함께 기본적인 부분이 더 신경을 쓰며 훈련하고 있다. 어려운 타구를 화려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내 앞에 오는 타구를 100% 처리하는 유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부상 없이 꾸준하게, 130경기 도전!
허주석은 2016시즌 115경기, 2017시즌 111경기에서 각각 나섰다. 한창 타격 페이스를 끌어올릴 즈음 허벅지 근육 등 부상에 발목 잡힌 아픈 기억이 있다. 2018시즌 성공을 위한 키워드로 "다치지 않는 것"을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강하게, 꾸준히 뛰다 보면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있다. "부상 없이 2018시즌을 마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건강하게 뛰다 보면 결과는 따라올 것이다. 올해 성공을 위한 키워드도 부상 없이 꾸준히 뛰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130경기 이상 출전을 목표로 잡고 있다."

오키나와(일본)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스포츠종합

이젠 평창 패럴림픽이다...한국선수단 입촌식

선수·임원 62명 참석...북한은 오늘 입촌 개인 1억원·단체 3억원 금 포상금 약속도



배동현(35) 단장이 이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선수단이 6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선수촌 국가광장에서 입촌식을 열고 선수촌에 공식 입촌했다.

입촌식에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4개 종목의 선수 및 임원 62명이 참석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날 체코 선수단과 합동 입촌식을 열어 눈길을 끌기도.

알파인스키와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막판 훈련을 하느라 입촌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성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 여행부 평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입촌식은 박은수 총장의 환영사, 패럴림픽기 게양 및 대회가 연주, 선수단 입장(한국·체코), 참가국 국기 게양 및 국가 연주, 선수총장과 선수단장의 선물교환, 배동현 단장과 선수단 주장 한민수(아이스하키) 선수의 대화석 사인,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배 단장은 서예가 열암 송정희씨가 쓴 '평창' 대형 글씨를 박은수 총장에 선물했다.

배 단장은 이날 거액의 포상금에 대해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창성건설 대표 겸 대한장애인 노르딕스키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배 단장은 개인전의 경우 금메달 1억원, 은메달 5000만원, 동메달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체종목에서는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



6일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한국선수단이 입촌식을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장애인체육회

메달 1억원이다.

47개 참가국 선수단이 속속 평창에 입성하는 가운데 국민적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한 선수단은 7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할 예정이다.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은 오전 9시께 군

사분계선(MDL)을 통과해 임경 수속을 마친 후 곧바로 평창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현 단장(조선장애인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선수 6명을 포함한 총 24명이 평창을 방문한다.

양행모 기자 ranbi@donga.com

대한체육회 대학생 명예기자단 모집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가 16일까지

2018년을 스포츠와 함께할 '대학생 명예기자단 3기'를 모집한다. 이번 대한체육회 대학생 명예기자단 3기는 총 15명으로 구성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주요 종합경기대회 취재와 생활체육에 대한 콘텐츠 기획을 수행하게 된다. 응모 대상자는 스포츠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으로, 16일까지 대한체육회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지원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sports_7330@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30일에 발표한다. 4월 초 발대식을 통해 명예기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명예기자들은 대한체육회 관련 월 주제별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 과제와 함께 조별 콘텐츠 제작 과제도 수행하게 된다. 팀원들과 관심 분야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팀원은 웹툰, 리뷰, 영상, 디자인, 사진 등 선택 지원분야를 공통으로 선택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대학생 명예기자단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원고료와 취재지원비가 지급되며, 대한체육회 주요 행사 및 종합경기대회 개최 시 취재를 적극 지원한다. 활동수료자에게는 대한체육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팀에게는 포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 혹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sports_73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행모 기자

박성현-유소연, 세계랭킹 자리 체인지

유소연 3위-박성현 4위...평산산 1위 유지

2018시즌 초반부터 여자골프 세계랭킹 판도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신인 자격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르는 등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던 박성현(25·KB국민은행)이 잠시 주춤하면서 유소연(28·메디힐)

이 다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6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3위와 4위에 나란히 포진하던 박성현과 유소연이 자리를 맞바꿨다. 4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HSBC 월드 챔피언십 최종성적이 반영된 결과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면 세계랭킹 선두를 탈환할 수 있었던 박성현은 공동

24위에 머무른 반면, 유소연은 공동 16위에 올라 순위가 역전됐다. 현재 유소연과 박성현의 세계랭킹 포인트는 각각 6.55점과 6.47점으로 격차는 0.08점이다.

치열한 중상위권과 달리 상위권은 기존 자리를 유지했다. 평 산산(29·중국)이 7.25점으로 선두를 달렸고, 렉시 톨슨(23·미국)은 7.17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선수들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었다. 김민경(30·한화큐셀)이 6위, 전인지(24·KB국민

은행)이 8위, 최혜진(19·롯데)이 10위에 올라 여자골프 세계랭킹 가운데 총 5명이 톱10에 포진했다. 이어 김세영(25·미래에셋)이 15위, 양희영(29·PNS장호)이 17위, 고진영(23·하이트진로)이 18위, 박민비(30·KB금융그룹)가 19위에 올랐다.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역전우승을 차지한 미셸 위(29·미국)는 12계단이 오른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